

#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김신정\*

## 〈차례〉

1. 무속신화와 기원에 대한 상상
2. 무속신화 속 여성의 몸
  - 2.1. 완성되는 ‘몸’의 불완전성 : 문제 해결자로서의 여성과 인간의 생사관
  - 2.2. 감각적 경험과 몸의 세계 인식 : 문제 인식자로서의 여성과 여성적 세계관
3. 마치며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무속신화 속에서 여성의 몸이 기술되는 방식과 몸의 형상화에 주목한다. 즉 무속신화 텍스트가 여성의 몸을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의 기원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이 몸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화는 문화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러한 신화를 구성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무속신화의 주제가 문화의 기원과 인간의 삶과 죽음의 기원을 찾는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상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속신화를, 여성의 몸을 통해 세상을 읽어 나가려는 인간의 시도라고 본다. 해당 텍스트 속의 여성인물들은 크게 네 명으로 자지맹왕아기, 바리데기, 자청비, 가문장아기이다. 우선 여성의 몸은 남성의 지배와 시선 속에서 불완전성의 가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를 가지게 된다. 불완전성으로 인해 여성의 육체는 남성에게 의해 구속받거나 버려지거나 성적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속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몸소 체험하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육체적 성장과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 이후 자발적으로 집을 나오게 되는 여성들의 행보와 감각적 체험을 통한 세계 인식의 자세를 통해 여성적 체험이 인간 문화를 구성하는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무속신화의 세계관은 여성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무속신화, 기원에 대한 상상력, 여성의 몸, 수난, 극복, 삶과 죽음, 불완전성, 감각적 체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

## 1. 무속신화와 기원에 대한 상상

신화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확히 말해 ‘기원’에 대한 해석이며 상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 안에서 그 너머를 그려볼 수 있으며,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화’ 속 주인공들은 인간 세계와의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인간과의 갈등과 화합 속에서 움직인다. 예컨대 창세에 관한 신화는 세상이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인간적 상상력의 소산이고, 건국 신화 역시, 건국주의 일대기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신이한 일화들이 전개된다. 건국주와 그의 아내가 겪는 모든 단계의 통과제외가 신화 속에서 인간의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무속신화의 내용은 인간의 수난이 중첩되며 이 과정을 이겨낸 인간이 영웅, 즉 신으로 좌정하는 신의 내력담이다.

더구나 무속신화는 인간의 숙명적인 질문,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며 죽게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의 형식으로 인간 스스로 답해나가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인간의 得生하는 계기

와 과정, 그리고 죽음과 재생, 혹은 타인의 삶과 죽음에 관여하는 모습, 권선징악적 결말이라는 이야기적 요소와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 속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수난이란, 무속신화 속 여성들의 경우 ‘몸’ 수난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여성의 몸은 ‘전체에서 조금 모자란 분량’으로 시작하여 버려지거나 감추어지고, 먼 길을 걷는 신체적 고단함, 고통스런 출산 혹은 살해당함 등의 수난을 겪게 된다. 여성이 신으로 좌정되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육체적 구속과 고통, 탈피의 모습들에 대한 독해는 인간이 여성의 몸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모습으로서의 신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속신화가 제의의 형식으로 지금까지 현장(굿판)에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을 통해 무속신화가 여전히 현재적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여전히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속신화를 제의적 형식으로만 환언하거나 사회 형태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방식만큼이나 신화 자체의 이야기 논리 안에 스며들어있는 세계인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도 긴요한 작업<sup>1)</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세계인식 도구로서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 속 ‘여성의 몸’을 살피고자 한다. 여성 몸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인간이 문화의 기원을 찾아가는 방식이 여성의 몸에 대한, 몸을 통한 상상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메를로 폰티는 우리의 육체를, 자극받으면 흥분하는 자연의 물리적인 대상들이 아니라, 조직화된 방식에 따라 스스로 지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기체-지각하고 행동하는 적응력의 구조로 서술한다.<sup>2)</sup> 즉, 인간은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지각할 수 있으므로, 육체는 내가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 여성의 몸을 살펴보는 것은, 무속신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몸에 대한 인식, 몸을 둘러싼 세계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1) 조현설, 『동아시아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273쪽.

2) 알폰소 링기스(김성균 역), 『낮선육체』, 새움, 2006, 26쪽.

무속신화는 인간과 신의 모습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하기에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야기 초반에는 신성과 인간적인 한계를 동시에 지닌 자로 등장한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몸은 이야기 안에서, ‘인간’이 지닌 한계에 ‘여성’이라는 한계를 더한, 신으로 가는 과정의 지난함이 당연할 과정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악조건의 극복을 바탕으로 한 신으로의 좌정<sup>3)</sup>은 고통이 컸던 만큼이나 그 결과가 의미 있다. 정리하자면, 무속신화의 내러티브는 여성이 겪는 수난과 이를 극복하는 자기희생의 과정<sup>4)</sup>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바리데기,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삼공본풀이를 대상 텍스트로 하고 있으며, 텍스트 안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몸에 초점을 맞추어 신화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 
- 3) 제주도 무속신화에 대한 연구는 신격들이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토착성과 외래성의 표지, 수렵 혹은 농경문화의 표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성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회, 1999. 이창윤,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적 결합과 출산』, 『실천민속학연구』 8, 실천민속학회, 2006.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조현설, 『동아시아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4) 조현설은 만주신화와 우리나라 무속신화에 여성 신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은 점에 주목하면서, 둘 다 여성들의 희생,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증여의 원리가 (다른 신화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나 우리나라 무속신화는 가부장적 가족 서사로 구성 혹은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들의 여신 되기에 죽음을 통한 중생(희생을 통한 서사)의 원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밖에 있다는 거리감이 여성과 국가적 사회 간의 긴장감을 유발하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여성이 구제하는 방식 즉 희생의 방식으로 기존 체제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현설, 『동아시아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참고.

## 2. 무속신화 속 여성의 몸

### 2.1. 완성되는 ‘몸’의 불완전성 : 문제 해결자로서의 여성과 인간의 생사관

무속신화 속 여성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이야기 종결 부분에 이르러 신으로 좌정된다.<sup>5)</sup> 최초의 상황에서 최후의 상황으로의 순서는 이야기적 세계가 전제하는 상황이며, 불가역적특성을 지닌다. 육체적 성장 또한 불가역적 특성을 지닌 사건이기에, 신화 텍스트에서 인간의 육체적 성장 과정을 중심 사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곧 수난과 극복, 이후 신으로의 좌정의 과정으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고통의 수반은, 그 이면에 고통과 불완전성으로부터의 ‘탈피’ 과정이 존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sup>6)</sup>. 탈피는 그 이전의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며, 여성은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육체를 점차 완성해 간다. 이때 여성 몸의 불완전성은 그 자체의 실존하는 개체로서의 가치와는 별개의 특성으로 여성 몸의 외부에서 부여하는 특성이다. 완전성의 지표는 그러므로 여성 몸의 비교기준으로서의 남성 몸이 된다.

5) 오세정, 『한국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73쪽.

이 논문에서는 주인공이 수행하는 과제가 보통의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로 신성한 존재로 변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6) ‘시련’모티프가 서사무가를 이끌어가는 힘에 대해서 연구한 한양하의 논문에서는 통과 의례 즉 입문의식을 시련의 한 형태로 보며, 서사무가는 시련을 겪는 주체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어른인가 아이인가에 따라 시련의 양상이 달라지고, 시련의 결과 또한 그 사회 속으로 편입되어 성장하는 시련극복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련 속에서 죽거나 좌절하는 경우라면 성장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시련’을 중심으로 살핀다면 어떤 상황에서 결여와 부재로 인해 역할을 탐색하거나 시험과 봉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반동인물에 대한 정치와 희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패턴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한양하,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의 양상과 의미』, 『온지논총』 29, 온지학회, 2011. 참고.

신화 텍스트에서는 자식을 기원하는 부모님이 불전에 공양을 하는 중에 시주하는 물건의 근량이 백 근에서 ‘한 근이 모자란’ 아흔아홉 근이 된 것에 대해, 스님은 그 부족함으로 인해 여아가 출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성 몸과 여성 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A-1) 임정국대감 부부를 불러 놓고 그날부터 손톱 발톱을 깎고 머리를 짧게 깎아 소금에 밥을 먹게 하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여, 대사님은 목탁을 치고 소사님은 바라를 치고, 소승은 북을 치며 아침엔 아침 불공, 낮엔 낮 불공 저녁엔 저녁 불공, 하루 종일 계속하여 삼세번 석달 열흘 백일을 드렸더니, 백일 되는 날 아침에는, “백근 근량을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대추나무로 만든 저울로 백근 근량을 달아 보니 백근이 안되고, 한 근이 부족하여 아흔 아홉 근이 되옵디다. 대사님이 말을 하되, “임정국대감님아, 백근이 찼으면 남자 자식이 탄생하였을 듯한데, 백근이 차지 못하여 여자 자식을 주니, 임정국땅을 내려서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합궁일을 받아 천정배필을 맺으십시오.”<sup>7)</sup>

(A-2) 짐진국 대감님이 송낙지 9만장 가사지 9만장 상백미 1천석 중백미 1천석 하백미 1천석 대추나무 저울로 달아 동관음 상주사에 원불수륙재를 드리간다. 아침엔 아침 수륙, 저녁엔 저녁 수륙 하루를 계속하여 삼세번 원불수륙재를 드리는 것이 석달 열흘 백일 되는 아침에는 대사중이 말을 하되, “대감님아, 대감님아, 백근 근량을 법당에 와서 다십시오.” 대추나무 저울로 달았더니, 한 근이 부족하여 백근이 못 차 아흔아홉 근이 된다. 대사중이 말을 하되,

“대감님아 대감님아, 백근이 찼으면 남자가 탄생할 듯한데, 백근이 못 내차니 여자 자식을 탄생시키니, 어서 짐진국 땅에 들어가서 합궁일을 받아 부부간 천정배필을 맺으십시오.”<sup>8)</sup>

7) 현용준·현승환 역, ‘초공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 제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44~45쪽.

(A-1)에서는 나이 오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짐진국대감 부부에게 자손복을 주려고 권제삼문을 받으러 내려왔다는 스님이 등장한다. 그는 “높이 들러서 낮게 시르르 시르르 부으십시오. 한 방울이 떨어지면 명이 떨어지고 복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하며 시주하는 쌀의 양이 자손의 명과 복과 관련이 있음을 주지시킨다. 그러나 시주한 쌀의 한 근이 부족하다며, 딸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좋은 날과 좋은 시에 천정배필을 맺어 주라는 말을 하고 떠난다. 한 근 부족의 의미가 자손의 명과 복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아가 태어나게 될 이유이고, 이러한 부족한 복을 지니고 태어난 여아는 성장하여 ‘ 짝 ’을 맞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적 논리를 통해, 텍스트 안에서의 ‘부족함’은 곧 부정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단순히 수량의 차이와 같은 개별적 특성이 아닌, 수량의 부족이라는 未完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으며 탄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아로 태어난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의 가치를 지니며, 완전성을 향하는 고단한 길로의 운명을 부여받는다. 또한 이야기적 세계관 속에서 그 완전성에의 지향은 남성과의 합일로서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의 과정에서 여성의 육체는 남성들의 시선과 욕망의 대상이 되며 불안하고 위태롭게 가부장적 질서 하에 놓여 있다. 딸이 점차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체에 대해 부모(특히 아버지)는 계속하여 불완전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불완전성의 부여는 2차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이후에도 계속되어, 부모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의 세계와 딸의 접촉을 차단한다.

(A-1)에서 어렵게 얻은 딸 노가단풍 자지명왕 아기씨가 15세가 되었을 때, 옥황상제의 분부로 부모가 집을 떠나야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감금하여 두고 간다.

8) 현용준·현승환 역, ‘세경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 제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199~201쪽.

(B-1) “자, 이 딸아이를 어찌하여 두고 가면 좋을까. 남자 자식이면 책실(冊室)로라도 데리고 갈 텐데 여자 자식이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업고 가지고 데리고 가지도 못하니 부부가 의논한 것이 일흔 여덟 구멍이 뚫린 비겟살창과 마흔 여덟 구멍이 뚫린 고무살창을 만들어 놓고 아기씨를 살창 안에 놓아 느린덕정하님에게 말을 하되, “우리가 공사 벼슬을 살고 올 때까지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아기씨를 키우고 있으면 우리가 공사 벼슬을 살고 와서는 중 문서를 돌려주마.”<sup>9)</sup>

(B-1)에서 부모는 아들이 아니라서 책실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 딸을 구멍이 뚫린 비겟살창과 고무살창을 만들어 음식과 옷을 넣어주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번갈아 봉하여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가두어 둔다. 여성 몸에 대한 이 같은 신체적 구속 행위는 가부장제 하에서 일어지는데, 여성 몸에 대해 불완전성을 부여하여, 가부장 체제 안에 영속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이다. 이 같은 시선은 부모의 부재 시에 발생한 그녀의 임신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여성은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봐 이리저리 숨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의 입장이 아버지 앞에서 몸의 형상으로서 재현되고 있다.

(B-2) “어떤 일로 병풍 뒤로 오느냐?”

“남자 앞이니 병풍 뒤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말도 맞다. 어떤 일로 눈은 흘깃흘깃하게 되었느냐?”

“아버지께서 언제면 오실까 살창 구멍으로 너무 봐 놓으니 차가운 바람 맞아서 눈은 흘긋거리게 되었습니다.”

“코는 어찌하여 망그러졌느냐?”

“아버님이 보고파서 너무 울다가 콧물이 내려 자주 닦아 놓으니 코가 망그러졌습니다.”

9) 현용준·현승환 역, ‘이공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49쪽.



“배는 어찌 둥그렇게 되었느냐.”

“느진덕정하님이 세 끼에 한 홉 밥을 하라고 했는데 한 되 밥을 하여 주니 식충이가 되어서 둥근 배가 되었습니다.”

“목은 어떻게 하여 흥두께가 되었느냐?”

“아버님이 울까 해서 작은 키 목 늘이면서 보는 것이 흥두께가 되었습니다.”<sup>10)</sup>

육체적 성장은 자연의 섭리이고, 여성의 임신은 주체적 선택임에도,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여자에게 까닭모를 공포심과 죄책감을 갖게 한다. 흘깃흘깃 눈치 보는 눈의 모양과 망그러진 코, 둥근 배와 흥두께 같은 목의 여성 몸에 대한 표현을 통해 임신한 여성이 갖게 되는 공포심과 죄의식 역시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서 비롯됨을, 여성 몸에 대한 시선의 흐름과 왜곡된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성의 불완전하고 수동적인 몸성에 대한 외부의 폭력성은 바리데기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바리데기의 어머니 길대 부인의 계속되는 여아의 출산으로, 왕자의 생산을 기다리던 오구대왕의 노여움이 폭발하여 바리데기는 버려지게 된다. 왕위는 아들에게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닌 절대 권력자의 판단 하에 그녀의 몸은 가차 없이 폐기처분되는 것이다.<sup>11)</sup> 일곱 번째 딸은 일곱이라는 과잉되고 잉여적인 물질로 치환될 뿐, 그 자체가 지닌 육체적 개별성과 생명의 존엄성은 박탈당한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딸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은 여성의 육체를 아버지를 제외한 남성의 시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놓으려는 기존 질서

10) 현용준·현승환 역, ‘이공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55쪽.

11) 소녀 주인공들은 소년 주인공에 비해 육체적 시련을 주로 겪는데 가두어지거나 버려지거나 쫓겨나는 시련을 겪거나 육체적 훼손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무쇠석함이나 옥함에 갇히거나 집안에 갇히는 것을 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관계에서 분리를 의미하며 십 오세에 이르러 분리되는 것을 입사식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한양하, 위의 논문, 233쪽 참고.

의 체제 지속 욕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sup>12)</sup>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노가단풍 자지맹왕 아가씨가 부모의 출타 중에 갇히게 된 장소에 있는 밖에서 열 수 없는 문이야말로 지극히 남성적 입장에서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스스로도 성적 욕망의 주체이며,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몸이 지닌 주체성을 간과한 구속의 방식은 여성의 육체적 성장이 곧, 정신적 성장이자 힘의 획득에 의해 필연적으로 해제된다.

바리데기는, 15세가 되었을 무렵 어머니의 부탁으로 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는 ‘남성’이라는 대립적 자질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아버지의 존재가 ‘죽음’과 가까워질 만큼 약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2차 성징은 이렇듯 아버지라는 절대 권력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여성의 성적 자질은 사실, 인간 종족의 보존이라는, 출산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 말고도, 생식을 넘어서 서로를 재생시키는, 즉 삶의 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한<sup>13)</sup>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자질이다. 그러므로 성의 차이를 규정짓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결정짓는 것과 당연히 연관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별이 다른 한쪽에 의해 이루어질 때, 반대쪽은 그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과 구속, 체벌의 모습 등은 이야기를 둘러싼 거대담론의 주체가 다름 아닌 남성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몸, 묘사되는 몸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sup>14)</sup>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남성의 분리의 논리에 여성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 여성은 갑자기 가해

12) 이창윤,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적 결합과 출산』, 『실천민속학연구』 8, 실천민속학회, 2006. 참고.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유폐된 몸은 남성들로부터 시각적으로 엄격히 차단한다고 한다. 성적 욕망은 일차적으로 보는 행위에서 자국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가에서는 ‘보다’의 행위가 강조되어 있다고 말한다.

13) 뤼스 이리가라이(박정오 역), 『나, 너, 우리』, 동문선, 1996, 15쪽.

14) 뤼스 이리가라이, 위의 책, 17쪽 참고.

지는 외부적 폭력에 무참히 깨지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기고 참고 억압하며 고통 받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뒤스 이리가라이가 말한, 문명의 두 가지 결핍된 측면에 대해 이야기 속 여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1. 자신의 몸 안에서 타자에게 생명과 성장을 허용하는 여성은 남성들만이 세운 질서로부터 배제된다.
2. 여자아이는 남성과 여성에 의해 수태되었더라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지위로 사회에 속하지는 못한다. 여성은 출산을 위한 가치 있고 자연스러운 신체로 보호된 채, 문화에서 벗어나 있다.<sup>15)</sup>

이처럼 문명 속에서 문명을 이끌어내는,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생물의 원리는 남성에 의해서 방해받으면서도 남성과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남성들이 세운 질서와 지배의 원리라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텍스트 안에서는 여성의 고통과 극복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모순을 여성이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화 속 여성들은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신성과의 결합이 가능하고, 저승으로 구약을 하러 갈 수 있으며, 동물을 환생시킬 수 있을 만큼 신성과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월성을 지닌 여성들이 왜 그들의 선천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가. 그것은 여성의 인간적 고통 즉 '신체적 고통'이 유표화 되는 것이 여성 몸을 통해 남성 위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여성의 포용력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무속신화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5) 뒤스 이리가라이, 위의 책, 48쪽.

(C-1) "아야 배여! 아야 배여!" 큰 아들이 태어나려 하는데, 어머니 밑으로 내려 하되 "아버님이 안 보았던 길이다."

어머니 오른쪽 겨드랑이를 모질게 뜯어 큰 아들 태어나고, 열 여드레 가까이 오니, 둘째아들 태어나려 하는데, "밑으로 낳자 하니 아버님이 못 보았던 길이라. 우리 형님도 안 나왔던 길이어." 왼쪽 겨드랑이 모질게 뜯어 태어나고, 스무 여드레가 되어 막내아들이 태어나려 하니, "밑으로 낳자 하니 아버님이 못 보았던 길이라. 우리 삼형제 태어나려 하나 어머니 가슴인들 답답하지 않으랴."<sup>16)</sup>

주자선생이 노가단풍 자지맹왕 아기씨의 '정수리를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쏘고 난 후' 아기를 가졌다는 것과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버님이 안 보았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 없이 이루어진 딸의 임신에 대한 아버지의 부정에 대한 서술이다. 이러한 가부장 질서에서 여성은 아들들의 탄생에 대해 가슴이 답답할 만큼 막막하다. 겨드랑이를 뜯은 채 태어나는 아기들의 모습은 명진국 따님애기에게 지게 되어 인간세사의 생불왕이 되지 못한 채 인간 할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용궁 따님애기가 맨 처음 아기를 받을 줄 몰라 산부의 겨드랑이를 뜯어놓고 산부와 아기를 모두 죽이게 되는 모습<sup>17)</sup>에 겹쳐진다. 아버지의 허락 없는, 남성과의 접촉과 임신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명진국 따님애기의 실수만큼이나 왜곡된 출산의 모습과 고통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무속신화에서 인간의 권력이 여성의 신성성을 종으로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여성은 기존 권력이 지닌 문제적 상황을 자기희생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여성의 신성성은 권력을 가진 자가 보기에 궁

16) 현용준·현승환 역, '이공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62~65쪽.

17) 현용준·현승환 역, '삼승할망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24~35쪽.

18) 조현설, 『동아시아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289~290쪽 참고.

정적이고 경외적인 것이 아니라, 불순하고 위협적인 특성이다.

노가단풍 자지멩왕 아기씨는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다른 땅을 향해 떠나지만, 공간의 이동이 삶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집을 떠나 만난 스님은 자신이 중이라 여인과 살림을 차리는 법은 없다며 아기씨 앞에 꼬부라진 길을 놓아 불도땅에 들어가게 한다. 남성의 질서에서 벗어나 다른 남성의 질서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삶은 아들들의 과거합격으로 인해 다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아들들이 허드렛일을 하며 글공부를 함께 한 삼천선비와 과거를 보러가서, 삼천선비들은 낙방하고 아가씨의 세 아들이 합격을 하자, 삼천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가씨의 목을 수화주 전대로 걸어 삼천천제석궁 깊은 궁에 가둔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다시 남성들의 질서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 속박되는 경험을 되풀이 하게 된다. 아들들의 노력으로 구조된 아기씨는 천하대권을 지키게 되고, 세 아들들은 무조신이 된다. 여성은 불완전한 탄생 이후, 외부로부터의 폭력에 대해 자기희생의 방법으로 극복하며 완성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때 여성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가족들도 신으로 좌절하게 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품 안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성의 포용력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필연성과 순환성을 이해하게 해준다.

## 2.2. 감각적 경험과 몸의 세계 인식 : 문제 인식자로서의 여성과 여성적 세계관

무속신화 속 여성은, 성장하면서 신체상의 여성적 자질이 부각되면서, 그간 가부장제 질서 하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자기 몸 인식은, 세계 속에 여성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때 이들은 외부에서 부여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통해 반응한다. 그 반응이 지배질서를 의식하여 공포심과 죄의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에

게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몸에 대한 인식은 몸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위반 행위라는 적극적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칭비가 가출을 하면서 ‘남장’을 함으로써 여성 몸을 은폐, 왜곡시키는 행위와 가문장 아기가 자신의 배꼽과 타고난 복을 믿기에 부모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행위는 둘 다 여성의 몸을 지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 간의 불화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는 부모로 상징되는 견고한 기존 체제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벗어나려는 주체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자칭비가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를 하러가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글공부는 아들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는 장면에서는, 세계 안에서의 남성에 대비되는 딸, 여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아주 정확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D-1)아버님이 말을 하되,

계집이라 하는 것이 글 공부 한다는 게 무슨 말이나?

자칭비가 말을 하되,

“아버님아, 늙어서 딸자식 하나 태어나 내일이라도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기일 제사 때 축지방이라도 나대로 써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럴 듯한 말이구나, 어서 그러면 글공부 하라.<sup>19)</sup>

(D-1)에서 남성만큼 글공부를 해야 부모님 제사에 지방을 쓸 줄도 알지 않겠냐는 자칭비의 주장은, 그 뜻이 진심이든 그렇지 않든 사회가 지정한 성역할들의 구획을 스스로 지워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남장’을 한 채 자칭도령으로서 문도령과 함께 길을 떠나는 자칭비의 모습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은폐한 채, 외양적으로 남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 능력을 겨룸에 있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19) 현용준·현승환 역, ‘세경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205쪽.

도 문도령보다 월등함을 나타낸다.<sup>20)</sup> 여성의 능력, 지략적인 월등함의 근거는, 그 누구도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이 정체를 밝힐 때까지 탄로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의 몸이 지닌 신체적 약점 혹은 남근의 부재함은 남장과 지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것이다. 집을 떠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여성에게 세계를 기만할 수 있는 지략이 있는 한, 기존 세계가 정해놓은 성역할과 가치관은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듯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인식하게 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 몸을 이용한 행위와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와의 대립에 임한다. 신화적 세계 속에서 하늘과 땅, 주인과 하인 같은 상하의 구도는 뚜렷하지 않은 대신,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간에 신체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때 여성의 감각적 체험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인간 문화의 형성원리에 대한 인간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시각적 감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청비는 집에서 일하는 느진덕정하님의 ‘곱고 하얀 손’을 본 후, 그 손 같이 하얗게 만들고자 자신이 직접 빨래를 하게 된다. 여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관찰과 인식은 곧장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과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자발적 수행으로 이어진다.

또한 신화텍스트에서 신은 인간적 상상력의 범위와 한계가 인간이기 때문인지 인간의 육체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신적 존재를 재현하는 데 있어 거인의 이미지를 삽입한다. 문도령과 정수남이의 거인적 이미지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남성의 거인적 이미지는 여성과 달리, 육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그가 소유하는 사물이나, 그가 사물에 가하는 행위에 대한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주천강 연못가에서 만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문도령의 한줌

20) 남성과 남장을 한 여성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남주인공보다 여주인공의 활약과 능력이 우위에 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286쪽 참고.

가득한 빛은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가져온 ‘1만장의 벼루’와 ‘3천장의 떡’은 그가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낸다. 또한 하인 정수남이는 ‘도끼로 소가죽 말가죽에 틈을 내어, 주걱 같은 손톱으로 껍질을 벗겨 소아홉, 말 아홉마리’를 앉아서 먹어치우는 엄청난 식성과 괴력의 소유자로 묘사되어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인 문도령과 계층 상 아래에 있는 정수남이는 신분상의 차이를 무색하게 하는 거대한 힘의 소유자로 보여 지게 된다. 이러한 남성의 신체적 묘사는 이들을 대하는 여성에게, 남성은 단순히 성적인 차이를 지닌 자가 아니라, 세계 밖으로 나아가려는 여성의 행로를 순탄치 않게 하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세계에 대한 여성의 감각적 인식은 시각 뿐 아니라 특히 촉각적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도령이 서수왕 아기와 결혼하기 위해 하늘로 떠난 후 그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청비는 자신을 희롱하는 하인 정수남이를 죽이기 위해 청미래를 ‘뽕죽’하게 만든다.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라고 유혹한 후, 정수남이가 잠이 들자 뽕죽한 청미래로 그의 귀를 ‘찢러’ 살해한다. 이 같은 자청비의 ‘찌름’의 행위는 반복해서 나타난다.

- ① 정수남이의 귀를 찢러 죽이다.
- ② 아랫마을 아이들로부터 얻은 죽은 봉새를 자신이 화살로 찢었다고 거짓말 하다.
- ④ 죽은 정수남이를 봉새로 환생하여 날아오게 하여 다시 화살로 찢러 죽이다.
- ⑤ 주모할머니 집에서 비단을 짜다가 문도령이 문구멍으로 넣은 손가락을 바늘로 찢는다.

찌름의 행위는 자청비가 농경신이면서 ‘직물신’으로 좌절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찢름의 촉각성은 직물신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또한 이와 같은 도



구를 이용한 행위는 하인 정수남이의 무례하고 노골적인 성적 욕망에 대한 방어 행위이자, 문도령과의 오줌멀리 누기 시합 같은 남근중심적인 놀이 안에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여성적 지혜의 발로이기도 하다. ‘찌름’이 여성이 남성에게 주체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베임’의 경험은 여성만의 고유한 체험이다. 문도령이 부모님이 정해 준 서수왕 따님과 혼인을 하지 않고, 자청비와 함께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며느리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내놓는다.

(E-1) “이놈 저놈 죽일 놈아, 이게 무슨 말이나? 내 며느리 될 사람은 선자 구덩이 파 숯 선 섬을 묻어 불을 피워놓고, 불 위에 칼날이 선 다리를 놓아 타 나가고 타 들어와야 나의 며느리 자격이 있다.”

자청비는 비옥 같은 얼굴에 염주 같은 눈물을 한없이 흘려가면서 발에 신었던 백능버선을 벗어두고 박씨 같은 발로 칼날이 선 다리 위에 올라선다. 앞으로 한 자국 뒤로 두 자국, 열 자국을 칼날 위로 밟아 들어가고 뒤로 열자국 밟아 나갈 때, 한 발은 땅에 놓고 한 발은 칼날 위에 있을 때에 살짝 발뒤꿈치가 베어진다. 자청비가 땅 밑으로 내려서면서 속치맛자락으로 재빨리 쓸었더니 속치마가 더러워진다.<sup>21)</sup>

(E-1)에서 자청비는, 목숨 걸고 올라선, 칼날이 선 다리를 무사히 건너는 듯 하다가 발 뒤꿈치가 베어져서 피가 난다. 문도령의 부모님은 이 과정을 통과한 자청비를 며느리로 인정하겠다고 하고, 자청비는 이러한 과정으로 여자가 열다섯 넘으면 한 달마다 월경이 오는 법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베임과 이로 인한 출혈의 경험은 여성이 매달 경험하게 되는 월경의 형성 원리가 된다. 베임의 촉각적 고통과 얼룩진 피를 보게 되는 자청비의 감각적 경험은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알리는 월경과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21) 현용준·현승환 역, ‘세경본풀이’,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250쪽.

자칭비가 신으로 좌정되면서 문도령과 정수남이도 함께 세경신이 된다는 점에서, ‘거인’의 육체성은 농경신으로서의 자칭비를 보완해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남장을 하여 자신을 숨기거나 할머니네 집 뒷방에 몸을 숨기고 베를 짜는 행위는 자신을 숨겨서라도 문도령과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있음으로써 문도령과의 결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자칭비가 세경신의 권능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기 때문이다.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윗마을에 살던 ‘강이영성이서불’과 아랫마을에 살던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이 너무 가난하여 먹고살 것이 없다가 우연히 만나 부부살림을 하게 된다. 이 둘은 너무 가난하여 남의 품팔이를 하며 겨우 살고, 아이를 낳아도 도와줄 일가친척, 쌀, 옷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은그릇에 가루를 타 먹여 아이를 살려 주니 그가 곧 은장아기이고, 둘째는 놋그릇에 가루를 타 먹여 살려 놋장아기, 셋째 딸은 나무 바가지에 가루를 타 먹여 살려 가문장 아기이다. 딸들이 자라면서 이들의 가정도 점차 발복하여 높은 기와집을 가진 천하거부가 되는데, 딸들이 15세가 되었을 무렵 어느 날, 두 부부는 심심하던 차에 딸들을 앉혀놓고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는 질문을 해본다. 첫째딸과 둘째딸이 하늘님 덕, 지하님 덕, 아버님 덕, 어머님 덕이라고 하자 부부는 매우 기뻐하지만, 막내딸인 가문장 아기가 하늘님 덕, 지하님 덕, 아버님 덕, 어머님 덕도 있지만, ‘내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위발신한다고 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이 기른 딸에 대해서 기른 공을 확인받고 싶은 부모는 자신의 행위발신이 부모덕 보다는 자신의 복과 생명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대답에 대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자식에 대한 소유와 지배행위는 자식을 마음대로 버리고 내치는 바리데기의 아버지의 棄兒 행위과 같다. 또한 어머니 눈에 거슬리고 아버지 눈에 밟게 보일까 ‘입던 의

22) 신태수, 『<세경본풀이>의 세계관적 기저와 담론구조』,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289쪽.

복을 거두어’ 검은 암소에 싣고, 먹을 식량을 실어 집을 나오는 가문장 아기의 모습은 부모에 의해서 무참히 버림받는 바리데기의 모습과 같다.

그러나 바리데기가 성장 후, 다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자 효심으로 약수를 찾아 길 떠나는 인간적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F-1)에서 가문장 아기는 부모와 언니들에 대해 신으로서의 단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1) 먼 올래에 나오니, 어머니는 부모의 정 때문에 딸 자식을 보내려 하니 섭섭하여,

“큰 딸아기야, 나가 보아라. 설운 딸아기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 먹고 가라고 하라.”

큰 형인 은장아기 노뚝돌 위로 올라서면서,

“설운 아우야, 빨리 가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

가문장 아기가 말을 하되,

“설운 큰 형님 노뚝돌 아래로 내려서면 청지네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큰 형님이 노뚝돌 아래로 내려서니 청지네 몸으로 환생해 간다.

큰 딸아기가 나간 것이 안 와 가니, 둘째 딸 아기 불러놓고,

“저 올래에 나가 보아라. 설운 아기 떠났는데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 먹고 가라고 하라.”

둘째 형인 늦장아기가 올래에 와서 거름 위로 올라서면서,

“아이고 설운 아우야, 빨리 가 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온다.”

가문장 아기가 말을 하되,

“설운 둘째 형이랑 거름 아래로 내려서면 용달버섯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가문장 아기는 ‘부모가 때리러 온다’고 거짓으로 말을 전하는 언니들을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변화시키는 저주를 내린다. 청지네와 용달버섯은 여성의 부정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므로 이는 악행을 저지른 여성에게 가해지는 벌이라고 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가 부모에게는 신체적 장애의 벌을 내리고, 언니들은 동물과 식물로 변하게 저주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에게 육체적 우/열의 정도를 부여하는 인간의 인식세계를 벗출 수 있다. ‘신체적 장애’와 ‘동물’이라는 지표는 인간의 건강한 육체에 대립되는 열등함을 속성으로 한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우등함과 열등함의 판별이, ‘남’과 ‘여’라는 성의 구분, 주인과 노비라는 계층의 구분이 아니라, 전체 인간의 신체적 형상에 대해서도 구분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명이 있으나 인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에게도 인간과의 비교 하에 열등한 것으로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가문장 아기의 저주는 언니들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전해져, 가문장 아기가 집을 떠난 후 가세가 기울고, 부모는 눈이 멀게 된다. 언니들과 부모의 육체에 각인된 가문장 아기의 분노는 그녀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발복을 증명하게 되는 그 순간에서야 멈출 수 있다.

바리데기와 당금애기가, ‘여성의 육체’를 가진 자로 버려진 후, 각각 부모를 구하고, 인류재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의를 스스로 찾아내듯이 자칭비와 가문장 아기는 자신 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복과 능력을 확인시킴으로써 존재 의의를 찾는다. 여성의 육체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질서 하에 무가치하게 여겨지지만, 그 육체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초월성이 남성보다 못하지 않는 자질임을 입증하는 방식을 통하여 타인에 의해 육체에 새겨진 열등함의 각인들을 주체적으로 지우고자 한다.

무속신화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게 됨에 따라, 여성적 시선에 의해 세상의 질서 안에 남녀를 초월한 신체적 열등함의 자질을 부가하게 되고, 인간을 동물과 식물보다 우등한 자질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여 모든 사물에 차등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며 재산을 저장하고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신화적 재현이며, 외부의 질서, 부모와 남성들의 질서 하에 위치지어지고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니고 태어나는 능력과 복, 운명을 믿게 되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여성들을 강조하고 있다.

### 3. 마치며

이 논문은 무속 신화의 여성들(바리데기,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삼공본풀이)의 몸에 가해진 수난과 성적 대상으로서 몸,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극복의 과정을 짚어보면서, 인류의 상상력의 재현 물로서의 신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여성신의 이야기들은 수난과 극복, 그 결과 신으로의 좌절이라는 서사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 수난은 대개 여성의 몸에 대한 구속과 棄兒의 형태를 가지며, 여성 몸에 대한 남성들의 지배 속에서 여성은 육체적으로 성장하며 남성적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극복의 과정에서 발휘되는 여성의 포용력과 자기 희생의 원리를 통해서, 여성 몸의 수난에 대한 서사는 곧 모든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여성의 몸에서 시작되고 끝나며 거듭 순환된다고 보는 생사관의 투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주체적인 몸 인식과 감각적인 경험들의 연속을 통해 자연을 경영하고 나뉘는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주체성을 살펴보았다. 이야기 안에서 육체는 의미 생성의 장소 즉, 이야기가 각인되는 장소가 되며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기표, 즉 서술적 플롯과 의미산출에 있어 일차적 요소가 됨<sup>23)</sup>을 전제할 때, 신화 속에서 몸에 기입되는 문화의 특성, 몸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무속신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여성의 몸이 지닌 생명력과 포용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신화적 의미를 찾으려는 작은 바램에서 시작되었지만, 연구대상 텍스트와 인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완성된 연구라고 하기 부끄럽다. 그러나 이를 시작으로 신화에 나타난 여성 몸의 형상화와 그 의미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를 기약하는 것으로 부족한 연구를 일단 맺고자 한다.

23) 피터 브룩스(이봉지, 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7, 30쪽.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현용준, 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4.

### 2. 단행본 및 논문

-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회, 1999, 53-76면.  
신태수, 「〈세경본풀이〉의 세계관적 기저와 담론구조」,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오세정, 「한국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67-96면.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305-333면.  
이운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263-292면.  
이창윤,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적 결합과 출산」, 『실천민속학연구』 8, 실천민속학회, 2006, 91-131면.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3면.  
조현설, 「동아시아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269-298면.  
한양하,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의 양상과 의미」, 『온지논총』 29, 온지학회, 2011, 217-248면.  
뤼스 이리가라이(박정오 역) 『나, 너, 우리』, 동문선, 2002.  
알폰소 링기스(김성균 역), 『낮선육체』, 새움, 2006.  
피터 브룩스(이봉지, 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7.

**Abstract**

## Female bodies in the Korean shaman myths

Kim, sinjeong

This paper focuses on the manner in which female bodies are described in the Korean shaman myths.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how the assumption that human culture is originated from the women's bodies is shown in the texts. The myths in general covers the stories about supernatural creatures and forces such as a variety of gods. However, their subjects cannot be beyond a human's imagination, and it is because myth is a story about the origin of human culture, and it is a human that creates the story. This paper assumes that Korean shaman myths are a product of humans' efforts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rough the female bodies. This paper analyzes four female characters in the selected texts: baridegi, chogongbonpuli, segyongbonpuli, samgongbonpuli. There are two ways of representing the imaginary world through female bodies in the texts; one is to embody a human's life and death by describing women that are confined to their home and even abandoned in the woods, and the other is to explain the origin of farming through the description of sensorial experience of the female characters.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Korean shaman myths and their implications by examining how female bodies are portrayed in the selected texts is a process to substantiate the assumption that the

vitality of the female bodies is the primary condition of developing the human culture and to discover the memories of humankind imprinted in the women's bodies.

Key words : korean shaman myth, female bodies, origin of human culture, sensorial experience, human's imagination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